

檀君系 教團 儀禮服飾에 關한 研究

김 현 경[†] · 임 상 임

원광대학교 의상학과

A Study on the Ritual Dress used by the Religious Groups of Dankun Followers

Hyun-Gyung Kim[†], Sang-Im Im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itual dress used by the 12 religious bodies of Dankun followers to help understand the teachings of these currently operating religious groups in Korea. The findings from the survey and related literatures are u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ritual dresses in terms of their items, construction, form, and colo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religious groups of Dankun followers have established the code for ritual dresses and they are named as 'chaebok'(제복, sacrificial robes), 'yebok'(예복, ceremonial dress), 'chungbok'(정복, formal attire), 'pubbok'(법복, Buddhist formal dress), or 'tobok'(도복, Taoist garments). The official headgear is usually named as 'chaemo'(제모), 'soogun'(수건), 'moja'(모자), or 'yoogun'(유건, 儒巾). Though, there are some groups which do not use any specific names for headgear. Second, the ritual dresses of most groups are composed of the 'hanbok'(한복, 韓服) or usual Western-style dress, a traditional outer wear, 'po'(포, 袍), and a headgear, as a basic attire. Third, the traditional 'hanbok' is worn as a base garment and an outer wear is worn above. The different types of outer wear are used; mostly 'chaksu jueui jikyoun po'(착수주의직령포, 窄袖周衣直領袍) for men and 'kwangsu jikyoun po'(광수직령포, 廣袖直領袍) and other various styles for women. The headgear from the ancient times are worn by both men and women. Fourth, the most frequently-used color for ritual dress is white for both men and women's dress. The colors from the Yin and Yang ideology are also used in the ritual dresses. Finally, the kinds of materials are not considered as an important element for the ritual dresses.

Key Words : ritual dress, hanbok(한복, 韓服), chaksu jueui jikyoun po(착수주의직령포, 窄袖周衣直領袍), kwangsu jikyoun po(광수직령포, 廣袖直領袍)

†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344-2 Shinyong-dong, Iksan, Jeonbuk, 570-749, Korea
Tel : 063-850-6648
E-mail : hyun2255@hanmail.net

I. 序 論

신종교 혹은 신흥종교란 기성종교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기성종교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종교라면 신종교(신흥종교)는 새로 생긴 종교(柳炳德 등 1992)를 일컫는다.

한국의 신종교는 1860년 수운 최재우에 의해 창립된 동학을 효시로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이 창립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단만도 8개 종단을 비롯하여 320여개 교단이 넘는다.

그 중 檀君系 宗團은 한국에서 개창된 8개 신흥 종단 중의 하나로서 1909년 나철에 의해 창립된 대종교를 중심으로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교단들을 통틀어 일컫는다.

한편 종교행동은 그것이 종교적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종교 복식에 있어서 특히 의례복식은 의식을 행할 때의 공경스러운 마음의 외적인 표현 수단임은 물론 종교의 교리·사상 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시된다.(임상임, 1993) 또한 의례복식은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의식인 동시에 의식 전체의 관계를 의미하며, 외적으로는 그 종교가 발생하게 된 文化的·政治的·社會的인 제반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내적으로는 宗教의 독특한 思想의 概念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각 종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개별 종교의 의례복식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식을 통해 신흥종교 사상을 이해하며 근대 한국에서 새로 생긴 종교들의 의례복식이 어떤 특징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甑山系 宗團에 이어 檀君系 宗團의 의례복식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단군계 교단 중에서 현재 종

교 활동을 하고 있는 12개 교단 즉, 대종교, 단군성전 천진전, 광명도, 한얼교, 단단학회, 대종교영암시교당, 태극사상통일원본부, 삼성궁, 삼신도, 단군교종무청, 삼진도, 선덕학회를 대상으로 그들이 착용하는 의례복식의 명칭, 구성, 형태와 색상 등과 이들 속에 표현된 상징을 각 교단별로 조사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도식화와 표로 제시하여 전체적인 단군계 의례복식의 특징과 의의를 찾는다.

연구방법은 경전과 문헌, 선행 논문 등의 자료와 직접방문, 면담, 사진 촬영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착용되는 儀禮服飾을 실증적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II. 檀君系 宗團의 概觀

1. 宗團의 創立

단군계 종단은 國祖 檀君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단군의 개국 이념인 弘益人間·理化世界·敬天崇祖愛人을 기본사상으로 하는(柳炳德 등 1992) 종교 단체이다.

檀君信仰은 大孫意識을 근간으로 하는 한민족 전래의 사상이었으나(崔根德, 1990) 단군 신앙이 오늘 날과 같은 교단조직으로 체계화 된 것은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부터이며, 그 대표적인 것은 1909년 羅喆(호 弘巖, 1864~1916)이 서울에서 창교한 단군교이다. 단군교에서는 창교를 다시 일으켰다고 하여 重光이라고 한다. 나철은 1910년 교명을 대종교로 바꾸었다.

단군신앙은 해방 이후 여러 창교자들에 의해 독자적인 교단 조직으로 체계화되고 확대되었으며, 현재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檀君系의 주요 教團은 〈표 1〉과 같다.

〈표 1〉 檀君系 주요 教團

교단명	창교자	창교연대	창교본부
대종교	나 철	190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 2동 13-78
단군성전천진전		1945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산 13-7
광명도	정요순	1947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52-2번지

교단명	창교자	창교연대	창교본부
신선도총본원	金白龍	1958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산 3 보문산
삼신신앙대본사	배선문	1962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 2리 산 68
천상환인미륵대도	金春花	1962	제주도 제주시 아라 1동 2130-1
한일교	신정일	196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3-90
단단학회	이유립	1967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덕면 상방리 산 52번지
대종교영암시교당(환종교)	이선동	1978	경북 문경군 문경읍 하초리 28
태극사상통일원본부 (새종교원)	羅東燮	1980	충남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11
단법승조원 (단군마니승조원)	朴鍾于	1982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산 1452호 10동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477-1)
삼성궁	한풀선사	1984	경남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청학동
삼신도	김석열	1984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80-16
단군교종무청	한산대사	1984	전북 무주군 설치면 대불리 156번지 신불사
삼진도	편일주	198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 5동 198
선덕학회	신철호, 김정희	1989	인천광역시 광화군 광화읍 신문리 175-2

2. 檀君系의 儀禮

단군계 교단들은 단군이 처음 나라를 열었다고 전해오는 10월 3일 開天節과 단군이 昇天했다는 3월 15일 御天節의兩大祭日로 한다.(李康五)

檀君系의 대표 教團 中에 하나인 대종교에서는 示壇 儀式¹⁾(大宗敎總本司, 개천 4557a :盧吉明, 1996)의 제천행사를 거행한다. 홍암 나철이 구월산 三聖祠에서 순교 조천한 날에 천체를 올리었는데, 이때 천체를 선의라는 이름으로 드렸다.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10월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와 춤으로 한얼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행하여 경축하는 것이 우리의 풍속이었다.(문화체육부) 또한 대종교의 의식은 祭天儀式인 示壇儀式(선의식)과 일반 의식인 敬拜式(경배식)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선의식은 해마다 4대 경절 즉, 重光節, 御天節, 嘉慶節, 開天節 새벽 6시에 天真殿에서 거행되는데, 그 절차는 紛記에 따라 드린다. 紛記란 선의식을 거행하는 순서를 적은 글을 말하며, 禮員²⁾에 主祀, 導式, 典儀, 奉香, 奏由, 奏樂, 願禱, 奉贊, 奉餐, 守護 등이 있어 제사를 질서정연하게 봉행한다.(大宗敎總本司, 개천 4457b)

1) 선의식의 '선(示壇)'자는 '천체 선', '제사지낼 선'이나 한얼님(하느님)께 제사지내는 祭天儀式.

2) 禮員: 제사를 받드는 위원.

제례절차는 開儀式, 參靈式, 奉幣式, 進餐式, 奏由式, 奏樂式, 願禱式, 辭靈式, 閉儀式의 순으로 선의식이 거행되며, 선의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廉節의 성격이나 주어진 여건에 따라 廉賀式이나 경축놀이 행사를 갖기도 한다.(盧吉明, 1996)

대종교의 天壇에 대한 치성은 朝夕敬拜와 매주 일요일의 敬拜와 연중 四大敬節의 定例敬拜가 있다. 그밖에는 여러 가지 종목의 宗敎的 式典致誠이 있다. 朝夕敬拜는 책임자가 치성을 담당하지만 週日敬拜만해도 교인들이 天壇에 供餉하는 禮物은 天水·天火·天香·天果·天餅이 있으며, 天果·天餅은 共同致誠時에 때에 따라서 올리는데 떡에 팔고물을 쓰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위의 정례 敬拜 외에 入敬靈戒式 등 여러 가지의 종교적 의전과 개인적인 치성이 있다.(李康五, 1992)

III. 各 教團의 儀禮服飾 考察

본 장에서 신흥종교 의례복식을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복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들 신흥종교 복식이 대다수 우리의 것을 영향받아 변형시켜 왔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그 특징적인 면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복식의 용어를 신흥종교 복식에 적용시켜 사용하고자 한

다. 즉. 트임의 유·무에 따라 麗衣·直領袍라 지칭하였고 소매의 넓고 좁음에 따라 寬袖, 廣袖로 하고자 한다.

1. 儀禮服飾의 特徵

1) 名稱 및 着裝 構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군계 대다수 교단에서는 남·녀 의례복식을 제정하고 있으며, 의례복의 명칭은 제복, 예복, 정복, 법의, 법복, 도복, 도의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관모는 제모, 수건, 모자, 유건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 외 명칭이 없이 착용되고 있는 의례복과 관모도 있다. 이와 같이 단군계 교단의

례복식의 명칭에서 儒·佛·仙적인 명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교리 사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착장 구성에서는 남자는 기본복인 한복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하고 그 위에 포와 관모를 쓴 모습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기본복(한복) 위에 포를 착용한 모습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는 대다수가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 모습이 가장 많으며 치마·저고리 위에 포와 관모를 쓰는 모습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 다양한 착장모습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군계 교단 의례복식의 착장 구성은 우리나라 한복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여자의 의복 모습에서 남자와 동일하게 포를 착용하기도 하여 남자와 여자가 평등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2〉 檀君系 教團 儀禮服飾의 名稱 및 着裝 構成

교단명	구 分		남 자		여 자	
	명 칭		의 복	관 모	의 복	관 모
	착장구성					
대종교	〈사진1, 2〉	명 칭	제 복	제 모	제 복	제 모
		착장구성	저고리, 바지, 포, 관모		저고리, 치마, 포	
	〈사진 3〉	명 칭	예 복	×	예 복	×
		착장구성	양복, 포, 가사형		양장, 포, 가사형	
단군성전천진전	명 칭	정 복	×		정 복	×
	착장구성	저고리, 바지, 포			저고리, 치마	
광명도	명 칭		수 건			수 건
〈사진 4〉	착장구성	저고리, 바지, 조끼, 마고자형, 관모			저고리, 치마, 관모	
한얼교	명 칭	법의, 법복	×		법의, 법복	×
	착장구성	저고리, 바지, 포, 케이프형			저고리, 치마, 배자형, 케이프형	
단군학회	명 칭	예 복	모 자		예 복	모 자
	착장구성	저고리, 바지, 포, 관모 or 양복, 포, 관모			저고리, 치마, 포, 관모 or 양장, 포, 관모	
대종교영암시교당	명 칭	도 복	×		도 복	×
	착장구성	저고리, 바지, 조끼, 포			저고리, 바지, 조끼, 포	
태극사상	명 칭	×	×		×	×
	착장구성	양복			양장	
삼성궁	명 칭	·	·		·	·
	착장구성	저고리, 바지, 포, 관모			저고리, 바지, 포, 관모	
삼신도	명 칭	·	·		·	·
	착장구성	저고리, 바지, 포 or 양복			저고리, 치마	
단군교종무청	명 칭	도 복	·		도 복	·
	착장구성	저고리, 바지, 포, 관모			저고리, 바지, 포, 관모	
삼진도	명 칭	도 복	유 건		도 복	·
	착장구성	저고리, 바지(개량), 포, 관모			저고리, 바지(개량)	
선덕학회	명 칭	×	×		×	×
	착장구성	양복			양장	

(× : 의례복식 착용 안함. · : 명칭없음)



〈사진 1〉 대종교 주사(남)와 예원(여)의 의례복식
(제복) 대종교제공 2000.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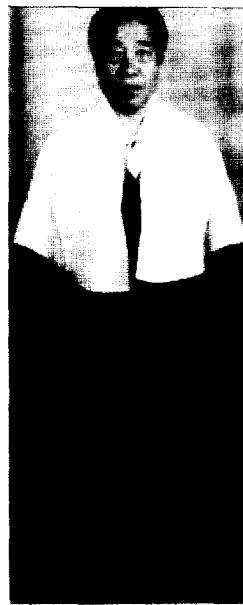
〈사진 2〉 대종교 田義, 秦由, 順濬의儀禮服飾(제복)
대종교제공 2000.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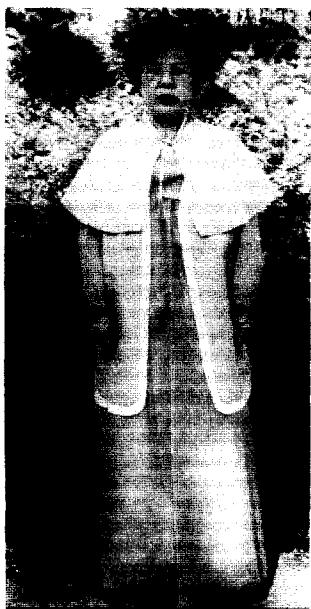
〈사진 3〉 대종교 男·女 儀禮服飾
(예복) 2000. 10. 25.



〈사진 4〉 광명도 남자 儀禮服飾
2000. 1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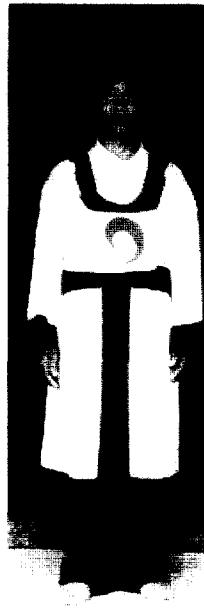


〈사진 5〉 한일교 男子 儀禮服飾
「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문화체육부, p.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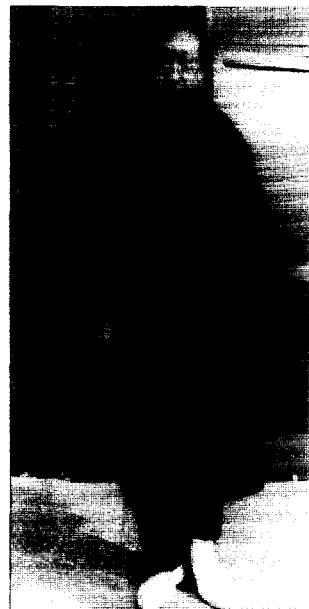
〈사진 6〉 한일교 女子 儀禮服飾

2000. 10. 26.



〈사진 7〉 단단학회 男・女 儀禮服飾

2000. 10. 27.



〈사진 8〉 대종교영암시교당 儀禮服飾

2000. 1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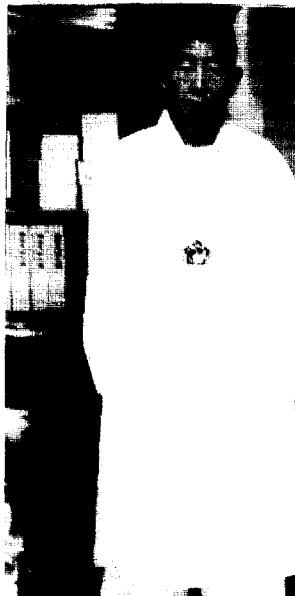
〈사진 9〉 삼성궁 제자들의 袍 2000. 10. 15.



〈사진 10〉 삼성궁 冠帽 2000. 10. 15



〈사진 11〉 단군교종무청 男・女 儀禮服飾
 2000. 11. 10.



〈사진 12〉 삼진도 남자 儀禮服飾
 2000. 10. 29.



〈사진 13〉 단군교종무청 帽子
 2000. 11. 10.

2) 形態

단군제 교단에서 착용하고 있는 表衣의 형태는 우리나라 고유 복식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의 의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1) 男子 表衣

〈표 3〉에서 보면, 남자 表衣는 대부분 窄袖周衣型直領袍를 입고 있다. 세부 항목에서 領은 대다수가 直領이며 단단학회만이 曲領이므로 領의 형태에 있어서 고유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袍은 右衽이 많으나 合衽과 左衽도 나타나고 있다. 소매는 대다수가 窪袖이며 3곳에서만이 廣袖이다. 배래는 직선과 곡선이 고루 분포를 보인다. 무는 단군교종무청에서 이중

무의 형이며 여밈은 대와 허리띠와 고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삼진도에서는 의복이 많이 개량되어 지퍼가 사용되고 있다. 槎 장식은 대종교, 단단학회, 삼성궁, 삼진도에서 보인다. 대종교와 단단학회에서는 교단의 상징마크를 의례복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상징물은 圓・方・角과 太極이 있다.

즉, 대종교 의례복식의 형태는 上古時代의 고유 기본 服飾形態를 본떠 만듬으로써 한배검의 근본 정신을 되찾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표상으로 우주섭리형에 맞추어, 모자는 ○, 저고리는 □형태로, 그리고 바지는 △형태로 하여(任相任, 1991) 仙・佛・儒 三教合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申喆均) 태극은 우주 萬象의 근원이며 인간 생명의 원천으로서 진리를 표상한다.

〈표 3〉 檀君系 教團 男子 表衣의 形態

구분 교단명		領	衽	袖	배래	섶	무	여밈 종류	트임	襷	상징마크	表衣
대종교	제복	直領	右	窄袖	直線	無	無	고름 허리띠	無	깃, 수구, 도련	無	착수직령포
	예복	直領	右	廣袖	直線	有	有	고름	양옆	無	圓, 方, 角 영대	대창의형 직령포

구분 교단명	령	衽	袖	배래	섶	무	여밈 종류	트임	襍	상징마크	表衣
단군성전 천진전	直領	右	窄袖	曲線	有	有	고름	無	無	無	착수주의형직령포
광명도	無	合	窄袖	曲線	有	無	끈	無	無	無	마고자형
한얼교	直領	右	窄袖	曲線	有	有	고름	無	無	無	착수주의형직령포 케이프형
단단학회	曲領	右	廣袖	두리 소매	無	無	단추	無	깃, 앞선, 수구, 도련 뒷중심선	太極 가슴가리개	광수심의형 곡령포
대종교영암 시교당	直領	右	廣袖	直線	有	有	고름	無	無	無	광수주의형 직령포
태극사상 통일원본부											양복
삼성궁	直領	右左	窄袖	두리소 매	無	無	허리띠	無	앞선, 수구	無	착수칠리형직령포
삼신도	直領	右	窄袖	曲線	有	有	고름	無	無	無	착수주의형직령포 양복
단군교 종무청	直領	右	廣袖	直線	有	이중	고름 세조대	뒷길 충심	無	無	도포형 직령포
삼진도	直領	合	窄袖	曲線	無	無	지퍼 허리띠	無	수구	太極 허리끈	원피스형
선희학회											양복

(2) 女子 表衣

여자 의례복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표의로서 포의 착용은 대종교, 단단학회, 단군교종무청, 삼성궁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그 외 저고리와 양장을 착용하고 있다. 세부 항목에서 령은 단단학회에서 만이 曲령이며 소매는 窄袖가 많고 배래는 直線과

曲線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밈은 대부분 우임이며 한얼교에서는 합임이고, 삼성궁의 경우 좌임과 우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襪 장식은 대종교, 한얼교, 단단학회, 삼성궁에서 보인다. 상징마크는 대종교, 단단학회, 삼진도에서는 남자 표의에서와 동일한 상징마크가 나타나고 있다.

〈표 4〉 檀君系 教團 女子 表衣의 形態

구분 교단명	령	衽	袖	배래	섶	무	여밈 종류	트임	襍	상징마크	表衣
대종교	제복	直領	右	廣袖	直線	無	有	허리띠	無	깃, 수구	無
	예복	直領	右	廣袖	直線	有	有	고름	양옆	無	圓, 方, 角 영대
단군성전 천진전	直領	右	窄袖	曲線	有	無	고름	無	無	無	저고리
광명도	直領	右	窄袖	曲線	有	無	고름	無	無	無	저고리
한얼교	無	合	無	無	無	無	無	양옆	앞선, 진동, 도련 뒷중심선	無	베자형 케이프형

구분 교단명	領	衽	袖	배래	섶	무	여임 종류	트임	襍	상징마크	表衣
단단학회	曲領	右	廣袖	두리 소매	無	無	단추	無	깃, 앞선 수구, 도련 뒷중심선	太極 가슴가리개	광수십의형 곡령포
대종교영암 시교당	直領	右	窄袖	曲線	有	無	고름	無	無	無	저고리
태극사상 통일원본부											양장
삼성궁	直領	右, 左	窄袖	直線	無	無	허리띠	無	앞선, 수구	無	착수칠리형 직령포
삼신도	直領	右	窄袖	曲線	有	無	고름	無	無	無	저고리
단군교 종무청	直領	右	廣袖	直線	有	이중	고름, 세조대	뒷길 중심	無	無	도포형 직령포
삼진도	直線	右	窄袖	曲線	有	無	고름	無	無	太極: 허리띠	저고리
선덕학회											양장

(3) 男·女 冠帽

남자 관모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개 교단 중에서 7곳에서 제정하여 쓰고 있으며 그 형태는 弁型이 가장 많고 그 외 儒巾型, 巾型, 坎頭型 등도 보인다. 관모의 대부분이 단층이며 문양은 단단학회에서만 圓·方·角을 상징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여자 관모는 4개 교단에서만 제정되고 있다. 그 형태는 弁型, 坎頭型, 巾型이 나타나고 있으며, 문양은 단단학회에서 남자와 동일한 문양이 사용되고 있다. 즉, 남·녀 관모는 우리나라 고유 관모의 형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변형하여 그들 사상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다수 관모는 도위나 직위에 따라 구별 없이 착용되고 있으나 대종교에서는 제천 행사를 주관하는 역할에 따라 관모를 달리 착용한다. 대종교의 관모<사진 1>는 主祀만이 착용하며 그 형태는 內冠과 外冠으로 되어 있어 내관은 黑色이고 외관은 黃色이다. 관모 위쪽에 각이 겹으며 재질은 천연소재인 삼베와 무명이 주원료이다. 착용 시에 관모 양옆에 끈을 달아 턱에 고정시킨다.(김문경 선도사와 면담, 2000.10.25.) <사진 2>에서 관모는 主祀를 제외한 '典儀', '奏由', '願禱'와 禮員들이 착용한다. 그 형태는 주사의 관모와는 달리 帽頭 모양이 둥글며 黑色이다.

<표 5> 檀君系 教團 男·女 冠帽의 形態

구분 교단명	남 자				여 자			
	보정	총수	紋樣	形態	보정	총수	紋樣	形態
대종교	막힘	單層	無	弁型				×
<사진 1, 2>	막힘	單層	無	弁型				×
단군성전천진전				×				×
광명도 <사진 4>	無	無	無	巾型	無	無	無	巾型
한얼교				×				×
단단학회 <사진 7>	트임	單層	圓, 方, 角	弁型	트임	單層	圓, 方, 角	弁型
대종교영암시교당				×				×
태극사상통일원본부				×				×
삼성궁 <사진 10>	막힘	單層	無	弁型	막힘	單層	無	弁型
삼신도				×				×
단군교종무청 <사진 13>	막힘	單層	無	坎頭型	막힘	單層	無	坎頭型
삼진도 <사진 12>	막힘	單層	無	儒巾型				×
선덕학회				×				×

(× : 관모를 착용하지 않음.)

3) 色相

(1) 男子 表衣

단군계 남·녀 표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색상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白色이 가장 많다. 그 외 靑, 赤, 黃色의 순이고, 青에 가까운 白青色(하늘색), 紫朱, 紫黃色(밤색) 등이 사용되고 있어 의례복의 색채 사용에 있어서 白衣民族主義思想과 陰陽五行思想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단군교종무청에서는 계절에 따라 夏季에는 白色과 冬季에는 黑色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종교 主祀服의 樣에 사용된 藍色은 대종교에서는 青色과 동일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색은 오행의 색채 관념에서 볼 때 하위의 색으로 清朝의 服色을 제외하고는 東洋의 服色에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朝鮮朝에서도 藍色은 堂下官의 服色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사람들은 藍色을 부끄러이 여겨 거부감을 가졌다.(金英淑, 1988) 그러나 대종교에서의 藍色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가장 상위 개념으

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의식을 주관하는 주사가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늘에 고하는 말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典儀', '奏由', '願禱'의 복장은 주사복과 동일하며 것, 수구, 도련, 허리띠의 색상은 紫朱色으로 땅을 상징하며(김문경 선도사와 면담, 2000.10.25.) 禮員이 착용하는 복장은 것, 수구, 도련, 허리띠의 색상이 黑色으로 하위의 개념을 지닌다.

단단학회에서는 五行思想에서 相生의 理法에 따라 관모는 赤色, 의복은 青色을 사용하여 相生色 즉, 青生赤을 나타내고 있다.

대종교영암시교당의 도복 색상인 白色은 읍력 3월 15일(어천절)에서 9월 30일(개천절 전날)까지 착용하며, 黑色은 개천절에서 다음해 어천절 전날까지 착용하여 봄·여름·가을·겨울용으로 구분된다.

단군교종무청 허리띠의 색상은 赤, 黃, 青 등이며 교단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허리띠의 색상을 선택하여 두르고, 그 외 사람이 죽었을 때는 白色 세조대를 맨다고 한다.

<표 6> 檀君系 教團 男子 表衣의 色相

교단명	衣服		冠帽	帶 허리띠	靴	상징마크		樣		表衣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구분	색상	
대종교	제복	白	黑 黃	青, 黑, 紫朱	黑	圓, 方, 角 영대	青, 黃, 赤	衣服 靴	青, 紫朱, 黑 灰, 赤	착수직령포
	예복	白	無	無	白					
	단군성전천진전	정복	白	無	無					
광명도	衣	白	白	無	·					마고자형
한얼교	법복	白青	無	無	·					착수주의형직령포
	법의	白青								
단단학회	예복	白青	赤	青	·	太極 가슴가리개	青, 黃, 赤	衣服	青	광수십의형곡령포
대종교영암 시교당	도복	黑, 白	無	無	·					광수주의형직령포
태극사상 통일원본부										양복
삼성궁	포	白	白	진한 밤색	·		앞선(衣) 袖口	白 黃, 밤색		착수철릭형직령포
	삼신도	포	白	無	無					

교단명	衣服		冠帽	帶 허리띠	靴	상징마크		襍		表衣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구분	색상	
	단군교종무청	도복	白	白	黃,赤,青	.				도포형적령포
삼진도	도복	白	黑	白	.	太極 허리띠	黃,青,赤			원피스형
선덕학회										양복

(2) 女子 表衣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 표의의 색상은 白色이 가장 많다. 그 외 青, 黃, 赤色의 순이고, 紫黃色(밤색)과 青에 가까운 白青色(하늘색)이 나타나고 있어 의례복의 색채 사용에 있어서白衣民族主義思想과 陰陽五行思想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모는 대부분이 착용하고 있지 않으나 착용한 경우 白色이 가장 많으며 赤色도 사용되고 있다. 허리

띠에서는 陰陽五行의 색상과 그 외 褐色이 나타나고 있고, 신발은 2곳에서만이 白色으로 제정하여 착용하며, 상징마크는 남자의 것과 동일한 형태와 색상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여자 의례복식의 색채 사용은 남자의 의복과 동일하게白衣民族主義思想과 陰陽五行思想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檀君系 教團 女子 表衣의 色相

교단명	衣服		冠帽	帶 허리띠	靴	상징마크		襍	表衣	
	구분	색상				구분	색상			
	대종교	재복	白	無	白	白		無	광수직령포	
단군성천천진전		예복	白	無	無	.	圓,方,角 영대	青,黃,赤	無	대창의형직령포
광명도	정복	白	無	無	.			무	제고리	
한일교	법복	白青	無	無	.			白	배자형	
	법의	白青	無	無	.			無	케이프형	
단단학회	예복	白青	赤	青	.	太極 가슴가리개	青,黃,赤	青	광수심의형곡령포	
태종교영암시교당	도복	白	無	無	白			無	제고리	
태극사상통일원본부									양장	
삼성궁	포	白	白	褐色	.			無	착수칠리형직령포	
삼신도	유	白	無	無	.			無	제고리	
단군교종무청	도복	白	白	黃,赤,青	.			無	도포형직령포	
삼진도	도복	白	無	白	.	太極 허리띠	青,黃,赤	無	제고리	
선덕학회					.				양장	

(. :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상에서 고찰한 檀君系 教團의 의례복식 중 표의의 形態와 名稱, 色相은 <그림 1>에서, 冠帽의 形態와 名稱, 色相은 <그림 2>에서 도식화로 정리하였다.

<그림 1> 檀君系 教團 表衣의 形態와 名稱, 色相

교단명	대종교(남) 제복	대종교(여). 제복	대종교(남, 여). 예복
형태			
색상	白色	白色	白色
교단명	단군성전친진전(남), 정복	광명도(남)	한일교(남), 범의·범복
형태			
색상	白色	白色	白青色
교단명	단단학회(남, 여), 예복	대종교영암시교당(남), 도복	삼성궁(남, 여)
형태			
색상	白青色	白色(春, 夏), 黑色(秋, 冬)	白色

〈그림 1〉 계속

교단명	삼신도(남)	단군교종무청(남,녀), 도복	삼진도(남), 도복
형태			
색상	白色	白色	白色

〈그림 2〉 檀君系 教團 冠帽의 形態와 名稱, 色相

교단명	대종교(남) 제모	광명도(남,녀), 수건	단단학화(남,녀) 모자
형태			
색상	素色(上), 黑色(下)	白色	赤色
교단명	삼성궁(남,녀)	단군교종무청(남,녀)	삼진도(남), 유건
형태			
색상	白色	白色	黑色

IV. 結 論

본 논문은 의례복식을 통하여 檀君系 12개 교단의 사상을 이해하고자 현재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대종교, 단군성전천진전, 광명도, 한얼교, 단단학회, 대종교 영암시교당, 태극사상통일원본부, 삼성궁, 삼신도, 단군교종무청, 삼진도, 선덕학회를 대상으로 하여 儀禮服飾의 名稱, 着裝構成, 形態, 色相 등을 통하여 의례복식의 特徵을 살펴보고 또한 의례복식에 나타난思想에 대해 고찰하였다.

1. 단군계 대다수 교단은 의례복식을 제정하고 있으며 의례복의 名稱은 재복, 예복, 정복, 법의, 법복, 도복, 도의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관모는 제모, 수건, 모자, 유건 등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명칭 없이 착용하고 있는 교단도 많다.

2. 儀禮服飾의 着裝構成은 대부분의 교단에서 남·녀 교도들이 기본복으로 한복이나 양복을 입으며 그 위에 포와 두식을 착용하고 있다. 착장 구성은 남자는 기본복(한복) 위에 포를 입고 관모를 착용한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는 기본복(한복)만을 착용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 태극사상통일원본부와 선덕학회에서는 양복이나 평상복을 입고 있다.

3. 기본복으로 착용하는 한복은 전통적인 形態이고 그 위에 착용하는 表衣는 남자는 窄袖周衣型直領袍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窄袖直領袍, 廣袖周衣型直領袍, 大鑿衣型直領袍, 道袍型直領袍, 廣袖深衣型曲領袍, 窄袖帖裡型直領袍, 麻姑子型, 裳裟型, 원피스型, 케이프型 등 다양한 형태도 있다. 여자는 廣袖直領袍, 大鑿衣型直領袍, 道袍型直領袍, 廣袖深衣型曲領袍, 窄袖帖裡型直領袍, 褲子型, 裳裟型, 케이프型 등의 表衣를 입고 있다.

관모의 형태는 남·녀 모두 上古時代의 弁型이 가장 많으며, 남자는 垦頭型, 巾型, 儒巾型 등이 보이고, 여자는 垦頭型, 巾型 등이 있다.

4. 儀禮服飾의 色相은 남·녀 모두에게서 白色이 가장 많이 보이며, 남자는 陰陽五行의 색상인 靑, 赤, 黃, 黑色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외 紫黃(밤색), 紫朱, 白青色(하늘) 등이 나타나고 있다. 여자의

의례복식에서는 靑, 赤, 黃色이 많이 보이며 그 외 紫黃, 白青色(하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몇몇 교단에서는 陰陽五行의 방위와 색상에 그 역할과 지위가 구분되고 있다.

5. 소재는 대부분 교단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나 대종교 영암시교당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세탁과 다림질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6. 檀君系 儀禮服飾에는 天·地·人思想, 陰陽五行思想, 民族主體思想 등이 象徵的으로 表現되고 있다.

參考文獻

- 金英淑(1988). 韓國服飾史에 나타난 傳統色 研究.
淑明女大博士學位論文
- 盧吉明(1996). 大倧教의 祭天儀禮. 이성과 신양 제 11호. 수원카톨릭대학 출판사
- 大倧教總本司(개천 4457a). 大倧教報. 여름호 (통권 제 287호)
- 大倧教總本司(개천 4457b). 大倧教報. 가을호 (통권 제 288호)
- 문화체육부(1996). 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 申喆均. 한思想과 大倧教義. 증산사상연구 제10집
- 柳炳德, 金洪喆, 梁銀容(1992). 韓·中·日 三國新宗教實態의 比較研究. 원광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
- 李康五. 韓國의 檀君祀廟. 全北大 韓國新宗教研究所
- 李康五(1992). 韓國新興宗教總鑑. 韓國新興宗教研究所
- 任相任(1991). 韓國 新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研究. 中央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任相任(1993). 한국 신종교 의례복식 고찰(Ⅱ). 원대 논문집 27
- 崔根德(1990). 白頭山 : 祭天·自然·사람, 韓民族의 天思想. 한국종교사회연구원·유교학회공편, 미진사
-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1992). 韓國文化象徵辭典. 東亞出版社